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8월 2일 연중 제18 주일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밥상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 밥과 반찬을 갖추어 차린 상은 누구에게 올리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랐다. 아랫사람에게는 밥상, 어른에게는 진지상, 그리고 임금에게는 수라상이라고 불렀다. 또한 반찬의 수에 따라서 삼첩, 오첩, 칠첩, 구첩, 십이첩 반상으로 나뉘었고, 임금의 수라상에는 가장 풍성한 십이첩 반상이 올랐다. 또 혼자 먹는 상은 독상, 두 사람이 함께 먹는 상은 겸상이라고 불렀다. 흥미롭게도 '겸상'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를 넘어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눈다는 정신이 담겨 있다.						
복음을 보면 창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진다. 세상의 창된 임금이신 예수님 앞에 차려진 상은 삼첩 반상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초라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다. 상식적으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부족한 양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적은 빵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바치신 뒤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고," 열 두 광주리나 남았다. 부족함으로 시작했지만 흘러 넘치는 풍요로 끝났다.						
오늘 복음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헤로데가 왕궁에서 화려한 생일 잔치를 열었다. 최고의 음식, 아마 십이첩 수라상보다도 더 화려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그 잔치의 마지막에는 세례자 요한의 잘린 머리가 은쟁반 위에 올려졌다. 권력과 욕심, 허영으로 가득한 잔치가 결국 죽음을 낳았다. 반면 예수님의 잔치는 광야에서, 풀밭 위에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생명이 살아났다. 굶주린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으며,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 헤로데의 잔치는 화려했지만 생명을 잃었고, 예수님의 잔치는 적었지만 생명을 나누었다. 이것이 하느님의 나라와 세상의 차이다.						
복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기적은 예수님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계산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으셨다.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기꺼이 내놓았다.						
또한 제자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분배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큰 재산이 없어도,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작은 시간, 작은 정성, 작은 친절, 작은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기적은 시작된다.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외친다. "돈 없는 자들도 모두 와서 사 먹어라." 하느님께서서는 측은한 마음으로 돈이 아니라 목마른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빵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말씀의 식탁과 성체의 식탁에 초대받는다. 미사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잔치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체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견된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다. 세상은 경쟁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누라고 하신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은 계산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사랑은 양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된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는 모습인지 모른다.						
오늘 이 미사에서 우리는 말씀과 성체라는 가장 귀한 양식을 받았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의 가정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 외로운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것, 힘겨운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선포한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 8,39)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결코 빈손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오늘 이 성체성사의 식탁에서 배부르게 먹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또 다른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나눔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커다란 기적이 되고, 우리 가정과 본당, 그리고 이 세상은 하느님의 풍성한 잔치로 변화될 것이다.						
	시간	해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보편 지향 기도
26 년 8/ 2	9 시	김종휘(루카))	김희경(안젤라)	정 한나		박유자(요안나)
	11 시	임장미(모니카)	유용(약종아오스팅)	영어권		영어권 임장미(모니카)
26 년 8/ 9	9시	현재영(바오로)	김양균(아네스)	현동숙(소피아)		박춘자(아가다)
	11시	이관복(바오로)	심묘현(안젤라)	박만석(마누엘)		이 영(레오) 이관숙(마리아)

공 동 체 소 식

◎ ‘Generation to Generation Campaign’
‘세대에서 세대로 기금 모금’

시카고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세대에서 세대로’의 기금모금에 교우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본당 목표: \$440,000.00 (5 년 동안)
교우들께 배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바랍니다. 납부하신 금액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수표를 쓰실 때는 수취인을 **G2G** 혹은 **G to G** 로 쓰셔도 됩니다.

◎ **Eucharistic Adoration (성체조배)**
▶일시: 8 월 2 일(일) 오전 10 시~10 시 45 분
(이중언어 미사전) 영어권 신자들이 소성당에서 성체조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본당 지하를 이용하시는 교우들께서는 침묵을 지켜 주시고, 한국어 신자분들의 참여도 대 환영입니다.

◎ **사목회의**
▶일시: 8월 2일(일) 12시 30분, 신관 4호

◎**8월 15일(토)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하느님께서 복되신 성자의 어머니 복되신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경축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시간: 저녁 7시 30분 (6시 청년미사는 없습니다)

◎**2026 년 어린이 복사단 피정안내**
▶일시: 8 월 22 일 오전 10 시~오후 4 시 (본당)
▶대상: 복사단 어린이 및 청소년
복사단원들의 신앙 성장과 전례 봉사의 의미를 배우는 1 일 피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 신청바랍니다.
▶문의: 표혜진(kmckkoreanschool@gmail.com)

◎**2026-2027 주일학교(CCD), 한국학교 학생모집**
▶**주일학교(CCD):**
신앙교육 및 성사준비, 다양한 체험활동들
▶**한국학교:**
한국어 및 문화와 역사교육, 다양한 체험활동들
▶일정: 2026 년 9 월 13 일 ~ 2027 년 5 월 2 일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9:20 ~ 10:30(CCD)
오후 12:30 ~ 2:30(한국학교)
▶대상: 만 5 세~8 학년
자녀들에게 신앙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및 등록: 성당 사무실, 표혜진(kmckkoreanschool@gmail.com)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요셉회
요셉회 야유회에 많이 참석하고 도와주신 여러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와 주신분들**
강성철, 고경인, 이문규, 김문갑, 이 충구, 장기섭, 여재동, 정영옥, 김토마스, 심안나, 이제인, 이관복, 이테오도라, 이글라라, 마조세핀, 이율리안나, 이헬레나, 민카타리나, 여줄리아, 김아가다, 김엘리사벳, 지데레사, 현소피아, 장수산나, 반포정, 정아그네스, 이세실리아, 한국장 의사, 모니카회, 성령기도회,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김현관(이냐시오), 주영재(요한), 신난숙(젬마), 김용섭(바오로), 허 유(사이몬), 심희섭(필립보), 최판연(젬마), 김종휘(루카), 조갑묵(스테파노), 현재영(바오로), 최해수(스테파노), 이영수(안드레아), 김정숙(아네스)

○교무금 \$ 2,370.00 ○주일헌금 \$ 1,656.00
○감사헌금 \$ 100.00 ○토요, 영어헌금 \$ 190.00

■**감사헌금:** 박경철(레오)

『 **2026년 8월 2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김앤디(안드레아), 지석철(스테파노), 유명주(마가렛)
이지훈(베드로), 이정명(세실리아)

■ **연미사**
김순열(카타리나), 도복순(안나), 도상기(이냐시오), 배안나, 이궁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콜라따), 이선애(마틸다), 주영선(소피아), 음규진(요셉), 최장식(안드레아), 최조선(마리아), 최판자(아그네스),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김성애(마리안나), 정영순(아가다)

8월 4일(화):
최경애(데레사), 소민호(스테파노), 심광숙, 이광석 **(생미사)**

김선경(임마콜라따), 김순열(카타리나), 김성애(마리안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연미사)**

8월 5일(수)~8월 7일(금):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연미사)**

8월 7일(금): 주영선(소피아) **(연미사)**



링컨우드 동물병원
LINCOLNWOOD ANIMAL HOSPITAL
Dr. Young R. Kwak (요셉)
(847) 677-7070
(773) 478-7070
6431 N. Cicero Ave (Cicero & Devon)
Lincolnwood, IL 60712



Oh Happy Day
Event . Hanbok . Photo
김 지영 (보나)
ohhappydayevent.com • (847) 313-1947



명품떡집 낙원
행복한 마음으로 빚은떡 정성껏 배달해드립니다.
우 동한 (다미아노)
(773) 588-8769 (24 hours) • (224) 392-8106



ZEPHYR DENTAL
제퍼 치과
Dr. Yong Chang, DDS
(773) 796-5928
(한국어 가능)
3531 N. Western Ave, Unit B, Chicago, 6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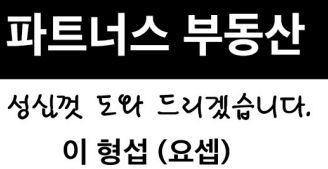
유엔아이여행사
YOUnI TRAVEL
함께해서 더욱 좋은 여행사
이 안젤라 (847) 870-4300
younitravel@gmail.com
www.younitravel.com
960 Rand Rd, Suite 219-A, Des Plaines



차 장의원
차 유진
(773) 592-8689 (24 hours)



USED CAR SALE
이 재수 (프란치스코)
(773) 615-9887
2425 Green Bay Rd, North Chicago, 6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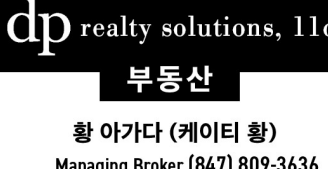
파트너스 부동산
성신킷 도타 드리겠습니다.
이 형섭 (요셉)
(773) 203-1590
615 Milwaukee Ave #40, Glenview, IL 60025



배 페인링
배 흥기 (그레고리오)
다년간의 경험, 교우 염가봉사
(847) 293-3163



Michael Zyung
정 형섭 부동산
(847) 334-3700
michaelzyung@bairdwarner.com



dp realty solutions, llc.
부동산
황 아가다 (케이티 황)
Managing Broker (847) 809-3636
katie.dprealty@gmail.com
950 Milwaukee Ave, #222, Glenview, IL 6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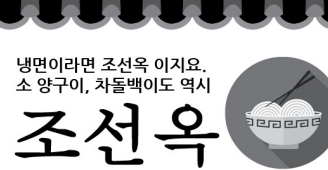
반포정
전공구이 전문, 추어탕
(773) 583-5209
3450 W. Foster Ave, Chicago



atom美
최 켜마
(847) 414-0863



Michael Zyung
정 형섭 부동산
(847) 334-3700
michaelzyung@bairdwarner.com



조선옥
냉면이라면 조선옥이지요.
소 양구이, 차돌박이도 역시
4200 N. Lincoln Ave, Chicago • (773) 549-5555



SUN
736-3883
SUN Auto Werk, Inc.
이 문규 (라파엘)
(773) 736-3883 • (773) 736-4550
4626 W. Cornelia, Chicago, IL



Jacob Young
CUSTOM CLOTHIERS
맞춤 정장 • 맞춤 셔츠
2214 N Lincoln Ave, Chicago, IL 60614
312.929.9069



씨제이 여행사
2026년 성지순례
장 제니스 (젬마)
(773) 969-8687
chicagoasia@gmail.com
www.cjtravelintour.com
3520 Milwaukee Ave #103, Northbrook

경험해 보신 분들이 믿고 다시 찾는...

한국장 의사 서 정일 (토마스)
Tom Suh, F.D.
(773) 720-1004 (24 hours)

“숲속의 집” 클라리지 양로원
지 춘자 (요안나) (847) 224-7925 • (773) 369-6160 700 Jenkisson Ave, Lake Bluf, IL 60044

www.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C (773) 941-2648

2026 년 8 월 2 일 연중 제 18 주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이사야서 55,1-3
◎ 화답송



주 님, 당신 손을 펼 치시 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 서.
R. The hand of the Lord feeds us; he an-swers all our needs.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35.37-39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복음 마태오 14,13-21
◎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66	봉헌성가 512
성체성가 498	파견성가 61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